

# “사료 NO!, 식사 YES!”...고급화 바람 부는 반려동물 한 끼

## 펫코노이 시대 <4>펫푸드

펫푸드 시장 연 12.8% 성장...2022년 1조7천억원  
수제 간식·케이크 등 프리미엄 기호 식품 수요 증가  
인증 기준·임상 효능 평가 등 안전성 기준 마련돼야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펫 푸드는 단순한 '사료'를 넘어 반려동물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로 진화하고 있다. 건강과 영양은 물론 반려동물의 기호까지 반영한 고급화된 먹거리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성 기준 강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10년 1천154억원에서 연평균 12.8% 성장해 2022년 1조7천61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23년에는 2조4천921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펫푸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반려동물의 수명 및 건강에

관심을 갖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능성, 유기농, 글루텐 프리 등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과 수제 간식, 케이크, 펫오마카세 등 프리미엄 푸드도 주목을 받으면서 반려동물 먹거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디저트와 간식이 요리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펫푸드 전문가'도 등장했다. 펫푸드 스타일리스트로도 불리는 이들은 반려동물의 영양학적 요구를 이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먹거리를 설계한다.

펫푸드 전문가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한 매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케

키, 수제 간식 등을 판매한다. 특히 최근에는 케이크 주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매장 관계자는 "강아지 생일 기념이나 선물용으로 케이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애견 유치원에서는 파티용 대형 케이크를 주문하기도 한다"며 "반려동물의 알레르기 반응을 고려한 주문이 많아지면서 케이크 시트나 크림, 재료 등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광주에 펫 케이크 매장이 하나, 둘 늘어 올해만 8개 매장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펫 전용 케이크는 일반 케이크보다 수요가 적긴 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과 레시피가 있다면 인기를 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원데이 클래스는 안전하고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맞춤형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급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매장도 등장했다. 10만원을 웃도는 가격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반려인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대기업들도 펫푸드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식품 회사는 반려동물의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 (단위: 원)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펫푸드 라인을 선보였다.

동물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 걱정 없이 급여가 가능한 곤충 단백질 펫푸드도 등장했다. 반려동물의 관절, 눈, 피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대기업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펫푸드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가족용 사료와 구분한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에 대한 특화 제도를 마련하고 원료의 안정성 평가와 원료 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나 첨가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에서 사료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만한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능성 펫푸드의 효능 검증과 제조 성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동물의 대사를 고려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 할만한 인증 제도 도입과 소비자

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희명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국내 펫푸드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펫푸드는 사료(Feed)가 아닌 음식(Food)의 개념으로, 섭취 시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사람과 동물의 대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기 복용 시 효과와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국내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1-3개월간의 급여 테스트를 통해 임상적으로 효능이 증명된 경우에만 관련 문구를 포장지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수목적 사료인 처방 사료는 효과성 입증에 필수적"이라며 "소비자는 유명인을 앞세운 광고에 의존해 구매하기보다 급여 테스트 등 과학적 데이터를 가진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솔기자

## 에코피스 '힐링보트' 美 CES 혁신상 선정

디자인바이 등도 대한민국 GD 4년 선정 국내외 '호평'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원 지역 기반 기업들 잇단 성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 권역 기업들의 혁신적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잇달아 호평을 얻고 있다.

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디자인기업,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들이 올해 미국 CES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7건을 수상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24년 서남권 디자인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에코피스씨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사진)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전시를 앞두

고 CES 혁신상에 선정됐다.

오른디자인이 디자인한 에코피스씨의 '힐링보트'는 도심 속 호수에 설치돼 시민들의 수상레저 활동과 함께 수질정화 기능을 갖춘 융복합 제품으로, 스마트 도시(Smart Cities) 분야에서 ▲기술력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힐링보트'는 2024 대한민국 굿디자인(GD) 선정, 권업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까지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디자인바이가 디자인한 ㈜나눔테크의 자동 심장 충격기가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그린토크의 골프 퍼팅 매트 ▲㈜에코프랑의 하수 악취저감 스마트시스템 제



폼 디자인이 GD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마하디자인랩이 디자인한 마마숲의 모듈형 가구 '꿈꾸는 나의 동굴'도 권업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국내 및 해외 어워드 수상은 지역 디자인의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며 "혁신적 디자인을 앞세워 글로벌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광주상의·경총, 신년인사회 날짜·장소 '혼선'

'1월3일·DJ센터' 경총 선전...상의, 6일로 변경  
공동 개최 실무 논의 행사 방식 차이 '따로 행사'

광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합회가 내년 신년인사회를 중북동 날짜로 택일해 예약일을 변경하는 등 혼선을 빚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양 단체에 따르면 2025년 신년인사회는 1월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경총이 광주상의보다 예약 날짜가 빨라 상의 행사 날짜와 장소가 변경됐다.

이를 두고 지역대표 경제단체인 광주상의의 체면이 구겨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월3일 관례적으로 광주상의가 신년인사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치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광주경총이 날짜와 장소를 선점해 불가피하게 1월6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경총은 신년인사회를 금요일조찬과 함께 치를 예정이어서 내년 1월 첫째 주 금요일인 3일로 1년 전에 예약했다는 입장이다. 장소도 초청인원수에 비해 협소해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3일 참석자에게 떡국 대접을 시작으로 난타 공연 등을 비롯 신년사와 덕담에 강기정 시장의 특강 등 일찬 프로그램을 내놨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올해 신년 인사

회는 조찬을 겸해 힐리데인 호텔에서 했는데 많은 인원이 몰리다보니 내년 신년인사회 장소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예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3일이 금요일이어서 포럼 날짜를 잡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상의와 경총은 공동 개최 등을 실무선에서 논의했으나 두 단체의 행사 방식과 프로그램이 너무 차이가 나 결국 '따로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상의는 내년 1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경총이 행사를 진행한 그 장소에서 뒤늦은 신년 인사회를 열 계획이다. /임재만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차원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 문, 벽, 창문,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세면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문의 : 062)650-2099